

새에 미친 반평생 탐조활동 중간결산

「한국의 새」 펴낸 조류학자 윤무부교수

예부터 우리나라는 4계절이 분명하고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어 금수강산이라 했다. 게다가 북쪽으로는 광활한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또 동서남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많은 철새와 텃새들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다.

이념도 없고 국경도 없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일찍이 시인들이 새를 노래하는 이유도 그것들의 자유스러움에서 연유한 것이 겠다.

새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생물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 다음으로 친근한 생물일 것이다. 처마밑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제비에 대한 기억은 메마른 도심의 공기를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도시인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새들은 우리 생활주변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새들이 인간을 경계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새의 고마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관심도 별로 갖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해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새의 생태와 철새의 도래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새의 신비한 자태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새박사’의 20여년 연구결과 집대성

일반인들에게 ‘새박사’로 통하는 윤무부교수(52, 경희대 생물학)도 그중의 한 사람이면서 이 땅의 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인물이다. 윤교수의 새에 대한 집착은 대단해서 일종의 광기까지 비쳐진다. 윤교수는 “내 취미는 새요, 연구도 새요, 가르치는 것도 새이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한다.

윤교수가 새를 찾아다니면서 관찰한 결과물을 엮어 펴낸 책은 여러 종이다. 「최신 한국 조류명집」 「한국의 새」(아카데미서적) 「강원의 자연」(강원도 교육위원회) 「한국의 텃새」 「한국의 철새」(대원사) 외에도 윤교수가 펴낸 책은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 펴낸 「한국의 새」(교학사)는 지금까지의 탐조활동을 중간정리했다는 뜻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윤교수는 새를 찾아서 20여년간을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부터 북녘의 비무장지

대인 철원, 동해의 고도인 독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 및 소혹산도, 국홀도, 칠발도 등을 돌아다녔다. 연구노트와 조류도감, 그리고 300mm에서부터 800mm의 초망원렌즈와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2600여 통의 필름에 222종의 새의 모습을 담았다.

윤교수에게 있어서 새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오묘한 깃털의 조화는 아무런 실증을 낼 수 없는 자연의 예술품”이라는 것이 윤교수의 지론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솝우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조차 죽음의 새로 인식되고 있는 까마귀의 빛깔도 자세히 보면 검은색이 아니라 청록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새는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에 없어야 하고, 또 어느 새는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새 한마리 한 마리는 모두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라고 말한다. 즉 “새는 환경생태계의 바로미터로, 새가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동식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임을 일반인들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 윤교수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새에 대한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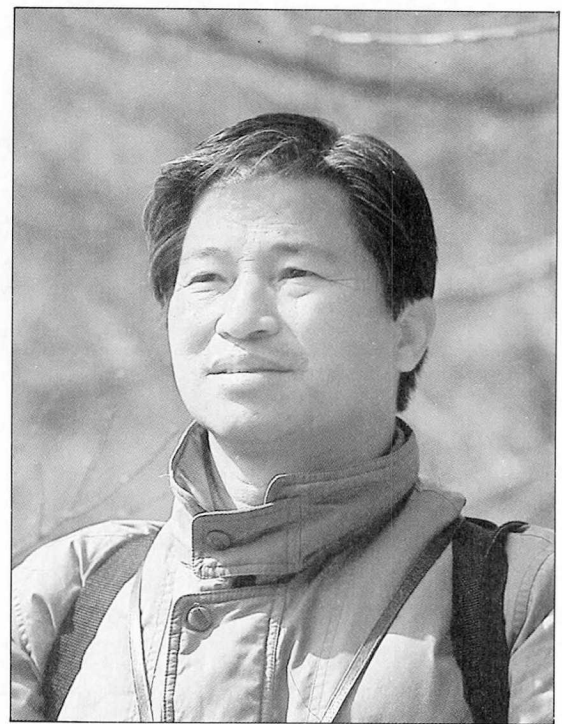
원색도감 「한국의 새」에는 윤교수가 그동안 찾아낸 한국의 새 222종의 원색사진 7백여장을 수록하여 새의 모습이나 생활환경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새의 형태, 습성, 식성 및 분포지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조류 및 번식지, 서식지, 도래지의 목록과 사진을 부록에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은 오직 윤교수 혼자 힘으로 촬영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수록하지 않았는데 그의 노력이 엿보인다.

1885년, 조류학자인 트리스트람에 의해 한국의 조류에 대한 논문이 영국의 조류학회지에 처음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조류는 396종에 이른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 조류학자들이 1년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새를 찾았다고 해도 한국의 새는 2백 여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동안 절종되었거나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는 새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류 396종을 분류해 보면, 4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 58종, 겨울철새 117종, 여름철새 64종, 나그네새(통과새) 103종, 외국에서 서식하다가 길을 잃어 우리나라에 온 새(미조) 53종, 그밖에 1940년경에 우리나

연구노트와 조류도감, 초망원렌즈와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윤교수는 지금까지 2천6백여통의 필름에 2백 여종의 새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 책은 20여 년간의 탐조활동을 통한 연구를 중간정리했다는 개인적 의미와 함께 독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도감이라 할만하다.



윤무부 교수.

라에 기록되었던 원앙이사촌(오리과) 등이 있다.

모든 사진 윤교수가 직접 촬영해

텃새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새들이다. 참새나 까치, 종다리, 굴뚝새, 딱새 등은 인가나 경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도시 근교에서 멀리 떨어진 울창한 산림에 사는 텃새로는 박새류, 어치, 왜가리 등이 있으며, 바닷가나 섬에 사는 텃새로는 꿩이갈매기를 필두로 재갈매기, 바다직바구니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를 비롯해서 철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오고 있다. 또 여름동안 있던 제비들은 음력 9월 9일을 전후하여 깊은 산고목나무로 들어가고, 대신 고목나무 속에 있던 겨울철새인 콩새가 교대하여 나온다는 옛이야기도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제비가 추운 겨울 동안에는 제비와 같은 가느다란 몸매로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통통한 콩새로 변하여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한다. 윤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철새의 이동경로에 대한 학설을 뒷받침해 주는 예라고 한다. 즉 여름에 살던 모든 들새들은 따뜻한 강남지방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음력 3월 삼짇날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 먹이, 기후, 번식본능 등과 고향을 찾는 버릇으로 이동을 한다. 우리나라 철새들에 관한 연구는 1960년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야생의 조류들을 생포하거나 어린 새끼들을 잡아 다리에 주소가 있는 알미늄 가락지를 끼워 날려보내 새들의 수명,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데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여름철새로는 습새와 바다제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천적, 먹이, 번식등의 문제로 외딴 섬에서 여름을 보낸다. 한편 여름철새의 대부분은 사람이 사는 야산이나 호숫가, 저수지, 개울가 등 넓은 평지의 물가와 논밭이나 낮은 숲이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데 그 대표적인 새들은 제비, 귀제비, 알락할미새, 검은딱새, 고니등이다. 이러한 환경에 찾아오는 새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울음소리와 깃털을 가지고 있고, 몇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가나 논밭, 산림에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조류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에 사는 철새들이 제일 먼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윤교수는 그 예로 뜸부기와 북방쇠찌르레기를 들고 있다. 뜸부기는 시골마을 눈에 많았지만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도시공원의 고목나무에 많던 북방쇠찌르레기도 이제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는 것이다.

겨울철새는 세가락갈매기, 바다비오리, 검둥오리, 멧새류, 되새류 등이 있는데 매년 11월초부터 찾아오기 시작해서 1월에는 모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한다. 이들은 2월 말부터 3월 중순이면 번식기인 북녘땅으로 거의 떠나고 여름철새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다.

특히 철새 중에서도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봄부터 10월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새로,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물총새, 쇠백로, 물닭 등이 그런 새들이라 한다. 이러한 조류들이 겨울을 남부지방에서 지내는 이유는 “이동중 낙오된 무리가 대부분일 것이고, 또한 최근 지구의 온실화로 일부 무리들이 남부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새」에서 윤교수는 부록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중 동물에 관계된 사항을 간추려 보여주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첫째,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둘째,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습지, 호소, 온천, 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는 특수한 동물, 동물군 및 서식지 또는 도래지, 셋째, 진귀한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넷째, 한국 특유의 양축동물, 다섯째, 귀중한 동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등이 지정되어 있다.

광릉수목원에 7년여동안 새먹이 줘

경기도 광릉수목원. 윤교수의 휴일은 대개 탐조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한 탐조지역이 없으면 광릉에 수시로 들르는 것이 윤교수의 버릇이 되어버렸다. 평상시 윤교수는 쇠기름, 돼지기름 등 새들의 먹이를 먹이통에 매달아 놓고는 이것을 먹기위해 찾아드는 새들을 관찰하는 것이 낙이자 하는 일이다. 먹을 것이 마땅찮은 겨울철, 이 먹이통은 숲속 작은 새들이 모여와 배불리 먹고 쉬며 노래하는 안식처다.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새먹이 주는 일로 인해 윤교수가 얻는 이익도 솔찮다. 광릉 수목원 일대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새들이 윤교수의 먹이를 먹기위해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윤교수의 책에 실린 사진들 중 광릉수목원에서 찍은 것들 대부분이 광릉 관리사무소 뒤 먹이통 주변에서 찍은 것들이다.



윤교수가 촬영한 재갈매기.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다.

하지만 광릉수목원에서도 윤교수는 새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새소리조차 녹음하기 힘들다고 한다.

“최근에 이곳(광릉수목원)에 도로포장이 되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또 차량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사라진 새도 적지 않다. 새들이 인구팽창, 산업개발, 공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이곳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좀더 새들과 친해져야 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일반인들이 새장 없이도 새를 보거나,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벗하는 데는 그리 어려운 일을 치루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작은 먹이통에 물기를 뺀 음식찌꺼기, 쌀집에서 버리는 싸라기, 단골 정육점에서 얻을 수 있는 쇠기름, 돼지기름이나 과일껍질을 새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깨끗하게 두면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나 비좁은 앞뜰에서도 들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윤교수가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에 새들을 담기위한 활동중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도 많다. 새에게 접근할 때는 세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칙도 그중의 하나. “새들은 비누냄새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탐조활동을 할 때는 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인 김정애 씨(42)와 결혼을 올렸을 때도 윤교수는 신혼여행 대신에 광릉수목원에서 동고비가 새끼를 낳는 광경을 지켜보느라고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탐조활동에 나선 윤교수의 옷차림은 허름하기 이를 데 없다. 며칠씩 탐조활동을 갈 때면 집에서 싸간 옷보통이는 아예 끄르지도 않고

가져오는 것이다. 윤교수가 옷보통이를 끄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가 자연스러운 색의 옷을 좋아한다”는 것. 아무튼 옷을 갈아입지 않고 며칠에 걸친 탐조활동을 무난히(?) 수행하는 윤교수다.

새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 시작해

결코 좋은 기억도 아니지만 기관원에게 필름이며 자신의 장비를 모두 늘어놓고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카메라, 망원렌즈, 고성능 녹음기와 마이크,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는 반공교육이 철저한 우리 국민 누가 뭐래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고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해서 ‘새박사’로 통할 정도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지만.

요즘 윤교수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새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다. “새들은 각 종마다 여러가지 울음소리를 갖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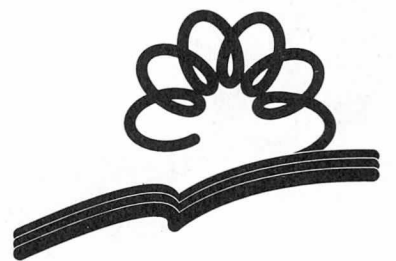
울음소리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연구 때문에 윤교수는 요즘 사진기보다는 녹음기를 휴대하고 있는 때가 더 많다. 물론 윤교수의 차 트렁크에는 800mm 렌즈가 항상 준비상태에 있지만.

윤교수는 또 우리나라 새 369종 중 183종의 번식과 생태, 먹이를 먹는 장면, 짝짓기 장면 등을 담은 50분짜리 LDP 3개를 제작할 예정이다. LDP 제작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윤교수는 “물가에 사는 새, 마을 야산에 사는 새, 심산에 사는 새, 천연기념물의 내용으로 새에 대해 총망라하고 새가 살 수 있는 자연의 구성원인 야생화 3백 여종도 LDP로 함께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LDP에는 또한 윤교수가 남극에서 직접 카메라에 담은 남극생물 14종의 생생한 모습도 담을 예정이다. 윤교수가 LDP를 제작하려는 데는 새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LDP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학교시설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여서 LDP 제작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LDP는 기록적인 의미에서 유용한 자료이고,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새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지는 윤교수에게 있어서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기에 담거나 아름다운 자태를 사진에 담은 것은 인간의 삶의 길을 조명해 주는 잠언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새가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윤교수의 사진 한장은 모두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이성수기자



| 책 | 을 | 떠 | 자 | 미 | 래 | 를 | 열 | 자 |

'93 책의 해